

공정위, 금융기관의 중복·과다보증 해지결과 발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월 27일(월) 지난 3월의 14개 금융기관장 회의에서 합의된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회사에 대한 중복·과다보증의 해지에 대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구조조정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채무보증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월 공정거래법을 개정하여 30대 기업집단 소속회사에 대하여 금년 4월 1일부터 신규 채무보증을 금지하였고, 기존 채무보증은 2000년 3월말까지 해소토록 하고, 이와 함께 채무보증의 원활한 해소를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출자관행의 개선도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지난 3월 19일 주요 금융기관장 회의를 개최하여 금융기관의 중복·과다보증을 금년 3월말까지 해소토록 한 합의에 따른 것이다.

동 금융기관장 회의에서 합의한 원칙에 따라 금융기관들이 금년 3월말까지 해소한 채무보증 금액은 총 10조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물적담보가 설정되어 있는데도 추가로 계열사가 보증하고 있는 경우는 계열사의 보증은 해지하였으며, 두 개 이상의 계열사가 보증하고 있는 경우에는 1개 계열사의 보증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해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기관들이 금년 3월말까지 해소한 10조원의 채무보증액은 당초 해지 목표액인 9.1조원을 약 9천억원 초과한 금액으로서, 이와 같이 당초 목표를 초과달성하게 된 것은 금융기관들이 중복·과다보증의 해지 뿐만 아니라 신용이 우량한 기업에 대해서는 채무보증 자체를 해지한 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동 중복·과다보증의 해지실적을 금융기관별로 보면 해지금액 기준으로는 산업은행 38,009억원, 외환은행 18,812억원, 조흥은행 6,246억원 순으로, 해지율 기준으로는 한일은행이 180%, 외환은행이 173%, 서울은행이 172%, 장기신용은행이 129%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지실적을 기업집단별로 보면 대우 33,150억원, 현대 13,896억원, 거평 9,914억원, 한진 6,086억원, 아남 5,782

억원, 삼성 5,445억원, 금호 5,411억원, 신호 3,524억원 순으로 나타났으며, 화의신청을 한 부실 기업집단의 경우에는 한라 72억원, 진로 63억원, 뉴코아 555억원으로 해소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금융기관의 중복·과다보증의 해소로 인해 30대 기업집단의 채무보증금액 33.5조원의 약 30%가 해소됨으로써 기업 구조조정을 촉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으며, 금융기관에서도 채무보증에 의한 대출을 신용에 의한 출자로 전환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어 불합리한 출자관행을 조기에 개선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분석하고 있다.

◆ 금융기관별 중복·과다보증 해지 현황 ◆

(단위 : 10억원)

금융기관	중복과다 보증액(A) ¹⁾	해지금액 (B)	해지율 (B/A)
산업은행	3,747	3,801	101%
외환은행	1,087	1,881	173%
조흥은행	615	625	102%
한일은행	251	451	180%
장기은행	344	445	129%
제일은행	423	443	105%
상업은행	309	383	124%
서울은행	156	268	172%
대한보증	124	124	100%
하나은행	111	112	101%
한국보증	24	24	100%
신한은행	5	5	100%
한불보증	3	5	167%
엘지보증	2	3	150%
기타 ²⁾	1,933	1,391 ³⁾	70%
총 계	9,134	9,961	109%

1) 중복과다보증은 원리금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의 보증금액(여신금액의 약 130%)을 초과하는 보증액임

2) 기타는 동양증권 2,650억원, 수출입은행 2,550억원, 한미은행 2,479억원, 교보생명 1,379억원 등을 포함

3) 해지실적이 다소 미달하는 경우는 지주회사의 부도 등으로 대출금상환연기, 대지급발생 등이 일어나고 있는 사고 금융과 관련된 채무보증으로 해지가 곤란한 경우와 폐쇄된 종금사들과 관련한 채무보증임